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

- 국방예산 증가율 8.2%, 최근 20년 내 최대
-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 고려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로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2027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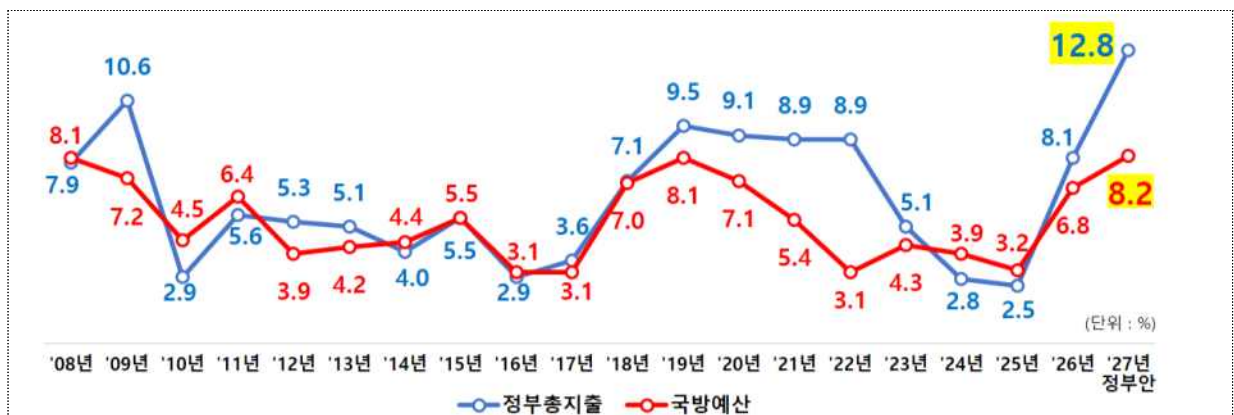
□ 특히,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합니다.

□ 부문별로는 전력운영 부문 전년 대비 5.9% 증가한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 7,112억 원, 병무행정 부문 전년 대비 1.4% 증가한 5,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 부문은 역대 최대폭(약 2.8조원) 증가

< 정부총지출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



□ 2027년 국방예산 중점 투자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 34.9% 증가
(‘26) 9조 222억원 → (‘27) 12조 1,744억원

-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합니다.
-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
- 아울러, KF-21 최초양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후속 양산도 추진하여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착수하여 우리의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강화합니다.

- ②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 상비예비군 확대 (‘26) 3,700명 → (‘27) 7,000명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26) 688억원 → (‘27) 903억원
* 동원Ⅰ형 9.5만원 → 13만원 / 동원Ⅱ형 5만원 → 7만원

-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한편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하여 예비군의 훈련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합니다.
- 또한,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 및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하여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첨단 전력으로 전환합니다.

▲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 55.5% 증가 ('26) 4,968억원 → ('27) 7,727억원
-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피지컬 AI 실증 신설 (신규430억원)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하여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 역량을 고도화합니다.
-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전투용 무인수상정(연구개발),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을 지속 확충합니다.
- 또한,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국방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④ 드론을 우리 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강화합니다.

▲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예산 18.8% 증가 ('26) 6,788억원 → ('27) 8,061억원
-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 ('26) 296억원 → ('27) 771억원

-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 정찰·감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충합니다.

-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 I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II 연구개발에도 신규 착수하여 레이저 등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합니다.
- 현역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을 확대하고,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대드론 장비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전 장병의 드론 운용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또한, 품질이 보장되는 드론의 신속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신설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핵심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장병 복무여건 개선, 미래 국방기술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국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 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병사에 대한 복지를 강화합니다.

- ▲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5.9% 반영(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원 수준)
-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26) 1,000만원 → ('27) 1,200만원
- ▲ 단기복무 임관 부사관 적금 매칭지원금 신설(월 최대 30만원, 3년 지원)
- ▲ 영외 거주간부 급식비 ('26) 월 13.7만원 → ('27) 16만원
- ▲ 병 단체 상해보험 신규 도입 (신규69억원)

-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을 5.9% 반영하여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 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하여 간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노후 관사·간부숙소 개선과 부족숙소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도 개선합니다.

- 그간 일선 간부들이 직접 수행한 자살·도박 예방, 인권 등 장병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간부들의 교육 준비·운영 부담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병사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병 단체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합니다.

⑥ 기술주권 확보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국방기술 투자를 확대합니다.

- ▲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신규 투자 (신규565억원)
- ▲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신규90억원)
- ▲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 확보 (신규121억원)

- AI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고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향후 항공전력의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레이저·양자 등 미래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 국방기술의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⑦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 ▲ K-방산스타트업 육성 ('26) 54억원 → ('27) 124억원
- ▲ 방산혁신기업 ('26) 659억원 → ('27) 758억원
- ▲ 중소기업 기술 軍 실증시험 지원사업 ('26) 70억원 → ('27) 170억원
- ▲ 중소기업 수출 패키지 지원 ('26) 512억원 → ('27) 627억원

- 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합니다.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지원을 확대하여 퍼지컬 AI 등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지원도 확대하여 기술개발 - 실증 - 군 활용 - 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합니다.

⑧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 생성형 AI 챗봇 도입으로 맞춤형 병무상담·민원안내 강화 (신규19억원)
- ▲ 병무청 동원훈련 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14억원)
- ▲ 입영·소집 입국 항공여비 지급 (신규6억원)

-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하여,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병무상담과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국외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여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정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

담당 부서	국방부 계획예산관 예산편성담당관	책임자	국 장	양성태 (02-748-5300)
		담당자	과 장	배인영 (02-748-5330)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	책임자	국 장 (代)	김경호 (02-2079-6200)
		담당자	과 장	송소연 (02-2079-6710)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국 장	김인환 (042-481-2662)
		담당자	과 장	전재천 (042-481-2632)

□ 총 재원

(억 원, %)

구 분	'26년 (A)	'27년 정부안 (B)	증 감 (B-A)	%
총지출(①+②+③)	67조 7,040	73조 2,777	5조 5,737	8.2
▶ ①전력운영 부문	47조 2,318	50조 416	2조 8,098	5.9
• 일반회계	45조 8,989	49조 614	3조 1,625	6.9
- 병력운영비	26조 3,248	27조 2,550	9,302	3.5
- 전력유지비	19조 5,741	21조 8,064	2조 2,323	11.4
• 특별회계·기금	6조 9,716	7조 5,587	5,871	8.4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5,303	9,775	4,472	84.3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3,583	1,594	△1,989	△55.5
- 군인복지기금	9,833	1조 352	519	5.3
- 군인연금기금	5조 997	5조 3,865	2,868	5.6
• 내부거래·보전지출	△5조 6,387	△6조 5,785	△9,398	16.7
▶ ②방위력개선 부문	19조 9,544	22조 7,112	2조 7,568	13.8
• 일반회계	19조 9,653	22조 7,224	2조 7,571	13.8
• 내부거래	△109	△112	△3	2.8
▶ ③병무행정 부문	5,178	5,249	71	1.4
• 일반회계	5,178	5,249	71	1.4

* '27년부터 정부 재정체계상 국방 분야를 구성하는 전력운영·방위력개선·병무행정의 3개 부문을 모두 포괄하여 총지출 개념으로 국방예산 산정

- 총지출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정
- 내부거래 :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군인복지기금으로 전출금 등
- 보전지출 : 군인연금기금·군인복지기금의 금융기관예치금 등

□ 프로그램별 재원

1 전력운영 부문

○ 일반회계

(억 원, %)

구 분	'26년 (A)	'27년 정부안 (C)	증 감 (B-A)	%
< 합 계 >	45조 8,989	49조 614	3조 1,625	6.9
병력운영비	26조 3,248	27조 2,550	9,302	3.5
급여정책	19조 2,347	19조 7,235	4,888	2.5
연금기금 전출금	4조 4,518	4조 8,649	4,131	9.3
급식 및 피복	2조 6,382	2조 6,666	284	1.1
전력유지비	19조 5,741	21조 8,064	2조 2,323	11.4
국방정보화	8,081	7,776	△305	△3.8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조 1,366	2조 3,798	2,432	11.4
군수지원 및 협력	7조 449	8조 174	9,725	13.8
군인사 및 교육훈련	9,397	1조 1,338	1,941	20.6
군사시설 건설	2조 9,892	3조 3,155	3,263	10.9
군사시설 운영	2조 4,737	2조 6,327	1,590	6.4
예비전력관리	2,597	2,981	384	14.8
국방인공지능 신설	1,600	3,610	2,010	125.6
책임운영기관 운영	2,609	2,629	20	0.8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6,659	1조 7,250	591	3.5
국방행정지원	7,824	8,462	638	8.1
복지기금 전출금	530	564	34	6.4

○ 특별회계·기금

(억 원, %)

구 분	'26년 (A)	'27년 정부안 (B)	증 감 (B-A)	%
< 합 계 >	6조 9,716	7조 5,587	5,871	8.4
특별회계	8,886	1조 1,369	2,483	27.9
국방·군사시설이전	5,303	9,775	4,472	84.3
주한미군기지이전	3,583	1,594	△1,989	△55.5
기금	6조 830	6조 4,218	3,388	5.6
군인복지	9,833	1조 352	519	5.3
군인연금	5조 997	5조 3,865	2,868	5.6

2 방위력개선 부문(일반회계)

(억 원, %)

구 분	'26년 (A)	'27년 정부안 (B)	증 감 (B-A)	%
< 합 계 >	19조 9,653	22조 7,224	2조 7,571	13.8
무기체계	15조 4,467	17조 7,987	2조 3,520	15.2
지휘정찰사업	1조 8,926	2조 4,393	5,467	28.9
기동화력사업	3조 6,208	3조 4,703	△1,505	△4.2
함정사업	2조 2,071	2조 1,540	△531	△2.4
항공기사업	4조 7,948	6조 5,662	1조 7,714	36.9
유도무기사업	2조 9,314	3조 1,689	2,375	8.1
방위사업정책지원	4조 2,739	4조 6,230	3,491	8.2
방위사업행정지원/ 내부거래	2,447	3,007	560	22.9

3 병무행정 부문(일반회계)

(억 원, %)

구 분	'26년 (A)	'27년 정부안 (B)	증 감 (B-A)	%
< 합 계 >	5,178	5,249	71	1.4
병역자원선발	204	186	△18	△8.8
병역자원충원	33	37	4	13.1
보충역복무지원	71	70	△1	△1.1
병무행정지원	4,870	4,956	86	1.8

2027년 국방분야 예산안 주요사업

목 차

1.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전력을 확충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	1
2. 국방 소버린 AI에 기반한 자주적 첨단강군 육성을 위해 AI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방 AX를 가속화합니다.	2
3. AI와 유·무인복합체계를 활용하여 장병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확대합니다. ..	3
4. 드론·대드론 장비 확충과 첨단 기술협력을 가속화합니다.	4
5. 드론을 우리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강화합니다.	5
6. 미래 무기의 핵심, 국방반도체를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6
7.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로 국방 항공추진체계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7
8. 인구구조 변화 속 한정된 병력은 전투임무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비전투분야 아웃소싱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8
9. 초급간부의 월 평균 보수가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9
10. 부사관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합니다.	10
11. 단기복무 부사관 매칭 지원금 신설로 우수인력 확보를 뒷받침합니다.	11
12. 전세자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도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12
13. 영외 거주 군인의 급식비를 월 16만원으로 인상하여 군 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13
14. 법정 의무교육 민간 전문강사 위탁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4
15. 지원에 의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15
16. 예비군 훈련비를 인상하여 예비군의 합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6
17. 민간 응급의료팀을 활용하여 예비군훈련 병력이 있는 곳에 의료인력을 밀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7
18. 병사 상해보험을 통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18
19.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을 통해 병영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9
20. '한 총, 한 책' 프로젝트를 통해 책 읽는 병영문화를 조성합니다.	20
21.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방위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1
22. 방산혁신기업 선정 확대로 중소기업 방산 진입 및 성장의 문을 넓힙니다.	22
23. 중소기업 제품을 군 환경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23
24.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합니다.	24
25.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체감형 병무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5
26. 국방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26
27.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소집 시 항공여비를 지급해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	27

1.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전력을 확충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합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전력사업팀 - KF-21, 이윤진 팀장, 02-2079-5810)

(방위사업청 핵추진잠수함사업팀 - 핵추진 잠수함, 신승철 팀장, 02-2079-5010)

(방위사업청 포병사업팀 - 230mm무유도탄, 김달원 팀장, 02-2079-5420)

(방위사업청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이지형 팀장, 02-2079-5720)

자주국방 예산 34.9% 증가(9조 222억원 → 12조 1,744억원)

□ 주요 내용

- **(KF-21 최초/후속양산)** 장기 운용 중인 전투기(F-4, F-5) 대체전력으로 미래전장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보라매(KF-21)를 양산
 - * 국내 개발 첨단 전투기 실전 배치, 항공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상생성장
- **(핵추진 잠수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역량 강화 및 무장, 기동성, 장기간 작전 능력이 향상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
 - *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년 장기 국가산업 발전 프로젝트이며, 참여기업 1,800개 이상으로 4만개 이상의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기대
- **(230mm 무유도탄)** 전작권 전환 및 대화력전 핵심자산인 230mm급 다련장(천무)에서 운용가능한 무유도탄을 양산
 - * 2차 양산 물량을 확보하여 적 핵심표적에 대한 집중 타격 능력 향상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적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핵심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강화를 위한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L-SAM)를 조기 확보
 - * 양산 물량 실전 배치를 통한 주요시설에 대한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

2. 국방 소버린 AI에 기반한 자주적 첨단강군 육성을 위해 AI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방 AX를 가속화합니다.

(국방부 국방인공지능정책과, 문윤태 과장, 02-748-5940)

- 국방 소버린 AI를 위한 국방AI 데이터 활용기반, AI 인프라 구축
(국방AI 데이터 구축,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28년까지 GPU 1,137장 확보)
- 민·군 AI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AX 거점 확대·구축 (5→6개소)
- 장병들 위험임무 및 비전투 임무를 피지컬AI로 전환 (다족로봇 200대 등)

□ 주요 내용

- (AI데이터/플랫폼 구축) 국방 소버린AI의 필수 자산인 '국방데이터'를 수집-구축-관리-활용하기 위한 국방부 통합플랫폼 구축 (551억원)
 - * 고가치 AI학습데이터 구축(244억원), 전군 공동활용 AI개발 플랫폼 구축(214억원)
- (AI인프라 구축) 국방 전 분야 AI확산을 위한 GPU, 데이터 저장 환경 및 AI개발·운영서버 등 국방 AI 인프라 구축 (366억원)
 - * 국방 생성형AI 성능향상을 위한 운영서버 구축(19억원), 각군 AI인프라 구축(70억원)
- (민·군 AI협력 생태계 조성) AI기술 소요에 대한 민·군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국방AX 거점 5개소 운영 및 신규 1개소 구축 (216억원)
 - * '26년 합참(용산), 육군(판교, 대전), 해군·해병대(부산), 공군(양재) 5개소 구축
- (D.AX 프로젝트) 병력감소 극복을 위해 장병들의 위험임무 및 비전투 임무를 피지컬AI로 대체하기 위한 다족로봇 등 시범도입 (430억원)
 - * 수송, 경계·경비, 위험물 취급 분야에 휴머노이드(2대), UGV(4대), 다족로봇(200대) 등 피지컬AI를 도입 및 실증하고, 분야별 월드모델 구축(54억원)

사업 개요

- (AI확산) 국방 전 분야에 AI도입·확산을 위한 국방데이터 활용기반·AI 인프라 구축, 첨단 AI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실증 예산 반영
(940 → 1,872억원, +932억원)

3. AI와 유·무인복합체계를 활용하여 장병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확대합니다.

(방위사업청 과학화체계사업팀-GOP 과학화경계시스템성능개량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박종인 팀장(代), 02-2079-5250)

(방위사업청 감시체계사업팀-무인지상감지센서, 이기철 팀장, 02-2079-5170)

(방위사업청 인공지능로봇사업팀-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다족보행로봇 이혁진 팀장 02-2079-5150)

(방위사업청 무인전투함사업팀-전투용무인수상정, 김재성 팀장, 02-2079-5590)

AI·유무인복합체계 예산 55.5% 증가 (4,968억원 → 7,727억원)

□ 주요 내용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수명주기,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 AI 객체 인식 등 개선된 시스템으로 성능을 개량
 - * 기존 운영중인 경계시스템 대비 탐지능력 향상 및 AI 영상감시 경보 기능 등 고도화
- (중요시설경계시스템) 현 병력 위주 중요시설 경계 체계를 「병력+AI 과학화경계시스템」이 통합된 체계로 전환
- (무인지상감지센서) 적 예상 침투로 및 병력 미배치 지역 등에 설치하여 적의 접근을 조기 경보하는 무인지상감지센서 체계를 양산
 - * 병력 감축에 따른 보병 책임 지역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위험성 폭발물 및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탐지 및 제거할 수 있는 로봇을 양산
 - * 폭발물·장애물 제거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임무수행 능력 향상 기대
-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해군 기뢰전 능력 보강을 위해 수중 자율주행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로봇을 양산
- (전투용무인수상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성하여 감시·정찰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용무인수상정을 연구개발
 - * 전방 해역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전장 우위를 확보
- (다족보행로봇) 감시 사각지역 및 위험 예상지역 사전 무인 정찰로 위험요소 사전 식별이 가능한 다족보행로봇을 구매

4. 드론·대드론 장비 확충과 첨단 기술협력을 가속화합니다.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 황요비 과장, 02-748-5430)

- 교육훈련용 드론장비, 작전업무지원용 드론·대드론장비 지원 확대
- 민군협력 인프라 구축(협력부대 운영) 예산 신규 반영

□ 주요 내용

- (드론교육훈련) 장병들의 드론 운용능력 숙달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시뮬레이터 등 교육 여건 조성 가속화
 - * (도입물량) '26년 11,377대 → '27년 17,320대 (+5,943대)
 - * (지원대상) 육군·해병대, 예비군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군으로 확대
- (드론역량 확충) 함정 작전지원용 드론, 방사선측정지원용 드론, 수송용 드론 등 작전 지원에 필요한 상용 드론 확충 및 유지
 - * 경계용 등 20종 드론(855대) 유지, 조명/방송용 드론 등 14종 드론(55대) 교체
- (대드론능력 강화) 부대·시설 및 핵심전력뿐만 아니라 개인 전투원까지 방호대상을 확대하여 생존성을 제고하고, 우수 상용장비와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대드론장비 신속 확충
 - * '27년 휴대용 통합형 대드론건 등 8종 신규 확보(291억원)
- (민군 협력) 민군협력부대 운영을 위한 실증 예산 신규 반영(40억)

사업 개요

- (드론 교육훈련)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 취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드론장비 획득) 드론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 전투원, 고가 무기 플랫폼, 기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상용 대드론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
- (민군 협력) 민간 최신기술이 접목된 첨단장비를 다양한 군 시험 인프라에서 검증하여 군 작전수행 개념 발전 및 민간 드론기술 발전에 기여

5. 드론을 우리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강화합니다.

(방위사업청 공격드론사업팀- 군집드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김태우 팀장, 02-2079-4140)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 -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마성민 팀장, 02-2079-5130)
(방위사업청 방공유도무기사업팀 - 레이저 대공무기 Block-I·II, 김남균 팀장, 02-2079-5750)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 K-Blue UAS 인증제도 구축, 정다영 과장, 02-2079-6840)

드론·대드론 역량강화 예산 18.8% 증가 (6,788억원 → 8,061억원)

□ 주요 내용

- (군집드론) 적 전략 표적에 대한 자동 탐지·인지 및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군집드론을 연구개발로 확보
- (중거리 자폭드론) 원거리에서 이동 중인 표적을 추적·조준이 가능한 중거리 자폭드론을 확보
-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보병·기보분대가 적의 공용화기 사수·저격수·지휘자를 원거리 정밀타격 할 수 있는 자폭드론을 확보
-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접적지역으로 침투하는 공중 항적을 신속히 탐지·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확보
- (레이저 대공무기 Block-I) 소형무인기 등을 이용한 침투·테러 위협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레이저대공무기를 확보
 - * 저비용, 고효율 신개념 미래 방공 무기체계 확보
- (레이저 대공무기 Block-II) 소형·경량화를 통해 이동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향상된 레이저대공무기 Block-II 를 확보
- (K-BLUE UAS 인증제도 구축) 성능이 우수한 상용 드론·대드론을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사전 확인, 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드론인증제도를 구축
 - * '27년은 제도시행(시범사업), 인증절차정보체계 구축, 드론인증센터 시설연구 수행 등 추진
 - * 외국産 드론제품 및 부품의 보안상 취약점에 대응하여 안전한 드론 운용 보장

6. 미래 무기의 핵심, 국방반도체를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노용준 과장, 02-2079-4550)

첨단 무기의 핵심 반도체 기술·제조역량 확보를 위한 R&D사업 신설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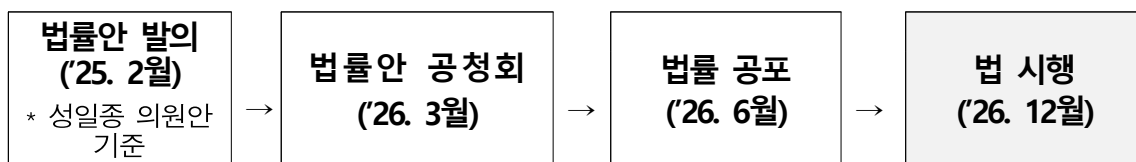
- (국방반도체 자립) 국방반도체법 제정·시행에 따른 무기체계 맞춤형 반도체 연구개발(R&D) 별도 트랙 마련
 - * ('26) 핵심기술 과제비 132억원 → ('27) 국방반도체(R&D) 사업비 565억원
- (R&D 확대) 무기체계 연계성, 기술성숙도(TRL), 반도체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 유형을 다변화하고, 국방반도체 개발 본격 확대
 - * (기술개발) 신규 10개 과제 237억원 (국산화 개발) 신규 6개 과제 112억원 등 '27년 502억원
-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역량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R&D 인프라를 결합하여 국방반도체 특화 거점을 구축하고, 국방 과제 수행
 - 지원규모 : 센터당 총사업비 2~4백억원, '27년 예산 50억원
 - 운용개념 : 학교-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과제 수행, 인력양성

참고 자료

< 연구개발 사업유형 >

1. 국방반도체 관련 소재·공정·패키징의 연구개발
2. 국방반도체 설계
3.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변경
4. 산·학·연공동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5. 국방반도체 시험·평가·검증 및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등

< 법률 제정 추진 현황 >



7.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로 국방 항공추진체계의 안정적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 심현석 팀장, 02-2079-4850)

- 무인전투기용 엔진 기술개발 신규 R&D사업 신설(신규 +20억원)
- 첨단항공엔진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투자 확대(신규 +70억원)

□ 주요 내용

-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자립) 공군 협업무인전투기, 해군 해상전투 무인항공기* 등 우리 군 유·무인 복합체계 구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 기술 자립 달성 추진
 - * '25년 장기관리대상전력 선정, '26년 통합소요 검토 진행 중
- (국가전략기술 확보) 국방부, 과기부, 산업부 등 범부처 전략기술*로 선정된 엔진 기술을 독자개발로 확보 추진
 - * 국방부 국방전략기술, 과기부 국가전략기술, 산업부 국가첨단전략기술, 재정경제부 신성장원천기술 등 지정
- (국정과제 이행) 국정과제 113-4 「첨단항공엔진 등 첨단기술 R&D 확대를 통한 기술자립」 달성 추진

- ▶ 16,000 lbf급(차세대전투기 적용), 5,500 lbf급(무인편대기 적용) 터보팬 엔진 개발 등을 통해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적용
- ▶ 산업부, 우주청 등 유관기관과 소재·공정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협력 및 공동 투자를 위해 첨단항공엔진 추진체계 구축

※ 첨단항공엔진(16,000lbf급)은 현재 사업추진심사(구. 예타) 추진을 위해 과기부 주관 대상사업 선정여부 검토 중(9월 초 확정)

신규 R&D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유·무인기에 장착 가능한 가스터빈 엔진과 프로펠러, 전기모터 등 개발을 국방기술(핵심기술)로 추진
- (추진과제) '27년 신규 추진하는 「협업무인전투기 장착형 경량 터보팬 엔진 기술」 과제는 해·공군 무인기 전력에 공통적으로 장착 가능한 5,500 lbf급 엔진의 시험개발에 앞서 부족기술을 선제 확보하는 과제
- (조직/근거) 방위사업청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 /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8. 인구구조 변화 속 한정된 병력은 전투임무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비전투분야 아웃소싱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안성민 과장, 02-748-6550)

시설물 관리, 민통초소 운영, 학교부대 경비 등 아웃소싱 시범사업 실시

□ 추진 배경

- (상비병력 감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 다수 부대에 편성된 병력은 감축하고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
- (시범사업)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분야별 시범사업 실시

□ 주요 내용

- (부대 종합관리) 제초, 제설, 재해예방활동 및 시설물 관리 등 대대급 부대의 일반 관리업무를 종합하여 민간에 아웃소싱
 - * 육군 1개 부대 (5사단 내 1개 대대)
- (민통초소 운영) 민간인 출입통제선 초소 (민통초소) 근무를 아웃소싱
 - * 육군 6개 초소 (5군단 지역)
- (주둔지 경비) 위병소 차량·인원 출입관리, CCTV 관제 등 부대 일반 경비업무를 민간 경비기업에 아웃소싱
 - * 육군 2개 학교부대 (종합행정학교, 학생종합군사학교)
- 유사시 상황대응은 지금과 동일하게 軍의 번개조, 5분대기조 병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

9. 초급간부의 월 평균 보수가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김상호 과장, 02-748-6610)

**저연차 초급간부(하·중사, 소·중위)의 기본급 인상률 최대 5.9% 적용
(공통처우개선 3.9% 대비 추가 +2%p 적용)**

□ 추진 배경

- 봉급 인상 등 현역병 처우 개선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하락한 초급간부 지원을 제고를 위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추진
* ('25.11월) BH(비서실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핵심성과” 기자 브리핑 실시 → '27년 월300만원으로 인상(공통처우개선 3.9% 기준 추가처우개선 +2.0% 316억원)

□ 주요 내용

- (초급간부 보수 인상) 저연차 초급간부(하·중사, 소·중위) 대상 추가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하사 1호봉 기준 월 평균 보수 300만원 (연봉 3,600만원) 달성
* ('23) 공통 1.7% + 추가 최대2.1% → ('24) 공통 2.5% + 추가 최대3.5% → ('25) 공통 3.0% + 추가 최대3.6% → ('26) 공통 3.5% + 추가 최대3.1% → ('27안) 공통 3.9% +추가 최대2.0%

□ 기대효과

-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통해 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이후 하락한 초급간부의 지원을 제고

10. 부사관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합니다.

(국방부 인력정책과, 정유진 과장, 02-748-5130)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10백만원→12백만원) 인상

□ 주요 내용

- (장려금 물량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부사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최근 부사관 선발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급 인원을 확대 및 지급단가를 인상
* ('26년) 531.5억원 → ('27년) 1,152억원 (+620억원, +116.7%)

□ 기대효과

-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으로 부사관 획득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사관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 '27년도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정부안 현황

구 분	'26년 예산	'27년 정부안	증감
금 액	531.5억원	1,152억원	+620억원
인 원	5,315명	9,600명	+4,285명
단 가	10백만원	12백만원	+2백만원

11. 단기복무 부사관 매칭 지원금 신설로 우수인력 확보를 뒷받침합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김상호 과장, 02-748-6610)

단기복무 임관 부사관 적금 매칭지원금(신규 189억원) 지원

□ 주요 내용

- (단기복무 부사관 정부지원금 지원) 우수인력의 “기술집약형 부사관” 선택을 유인하기 위해 단기복무로 임관하는 부사관 대상 3년 만기 적금 가입 시 정부지원금 지원(189억, 신규)
* '27년 이후 임관 단기복무 부사관(연 9,600명), 월 최대 3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 기대효과

- 병역자원 급감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병 의무복무 대체 선택지로 단기복무 부사관이 고려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 → 장기적으로 “간부 중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병력구조 전환 가능

사업 개요

- (지원대상) '27년부터 임관하는 단기복무 부사관 / 연 9,600명
- (지원내용) 군 적금(이율 5.5%) 가입 시 적금 납입액에 비례하여 매월 정부 지원금 지원(월 최대 30만원, 36개월)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 적금 만기 시 자산형성 : 약 2,310만원
/ 원금(1,080만원)+적금(1,080만원)+이자(약 150만원)
※ (참고) 단기복무 적금 혜택을 받은 부사관이 장기 전환 시 장기복무 적금 가입은 불가

12. 전세자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도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강정화 과장, 02-748-5470)

- 전세자금 지원단가 인상(2.24억원, +6.16%)
-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도 지원대상으로 확대(1,054명, 1.05억원)

□ 주요 내용

- (지원단가 인상) 군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단가를 중위전세가('24년도 기준)의 84% 수준으로 인상*

* ('26년) 관사 2.11억원 → ('27년) 관사 2.24억원, 간부숙소 1.05억원

- (지원대상 확대) ^{현행} 관사 대상자 → ^{개정} 관사·간부숙소 대상자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26. 6. 9.)에 따라,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군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노후관사 유지보수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관사·간부숙소 부족 등으로 관사·간부숙소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 간부
- (지원내용) 민간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
- (지원방법) 국방부-금융기관 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군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발생하는 이자는 국방부에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정산

13. 영외 거주 군인의 급식비를 월 16만원으로 인상하여 군 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이대호 과장, 02-748-5720)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 인상(월 13.7만원 → 월 16만원, +16.8%)

□ 주요 내용

-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 인상)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16만원으로 인상(17.2만명)
* ('25년) 월 13.7만원 → ('26년) 월 16만원 (+2.3만원, +16.8%)

참고 자료

- '26년에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2만원 인상(월 14만원 → 16만원)되었으나, 군인(장교 및 부사관)의 영외자급식비는 동결(월 13.7만원)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6.1.2.)에 따라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인상되었으나, 영외자급식비는 인건비(수당)가 아닌 사업비(급식비)로 분류됨에 따라 동 규정 미적용

14. 법정 의무교육 민간 전문강사 위탁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ی겠습니다.

(국방부 군인권총괄과, 김미성 과장, 02-748-6830)

법정 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게 위탁하여 교육 전문성 제고

□ 주요 내용

- (법정 의무교육 민간 위탁) 군 전문교관이 실시하던 자살·도박예방, 인권 등 법정 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게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각군의 업무부담 경감
- 법정 의무교육 민간전문강사료 지원 부대 확대 및 신설
 - * 인권교육 확대 : ('26) 연 500개(1.1억원) → ('27 정부안) 연 800개(1.8억원)
 - 자살·도박·마약류 예방 및 다문화이해 교육 신설 : ('27 정부안) 연 718개(6.3억원)
 - ** 강사료 단가 : 2시간 교육 시 22만원

참고 자료

■ 인권분야 법정 의무교육 주기

구분	인권교육	자살예방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도박예방 교육	마약류 예방 교육
교육주기	분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15. 지원에 의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이상옥 과장, 02-748-5210)

상비예비군 확대

(’26년) 3,700명/87억 → (’27년) 7,000명/256억(+3,300명/+169억)

□ 주요 내용

- (상비예비군 확대) 평시 추가 훈련을 통해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도록 상비예비군 운영 확대
* ’26년 3,700명 → ’27년 7,000명
- (예비군의 전문성 활용 및 강화와 연계) 상비예비군은 군과 민간에서 이미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드론, 박격포, 지휘통제, 장갑차 운용 등 첨단·전문분야에 운용

□ 기대 효과

- 상비예비군 확대를 통해 전시 즉각적인 부대전투력 유지 및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전시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참고 자료

■ 상비예비군 제도 개요

- 동원예비군 훈련 대비 평시에 일정기간 추가 훈련함으로써 장비 운용 등을 숙달하고, 전시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보장
- 현대전에서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드론·로봇·AI 등 민간의 전문인력을 상비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16. 예비군 훈련비를 인상하여 예비군의 합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김후길 과장, 02-748-5240)

예비군 훈련비 인상 ('26년) 688억 → ('27년) 903억(+215억, 31.3%)

□ 주요 내용

- (훈련비 인상) '30년까지 최저시급 수준 지급을 목표로 훈련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27년 유형별 예비군훈련비

- 동원훈련 I 형 9.5만원 → 13만원 (36.8%), 동원훈련 II 형 5만원 → 7만원 (40%)
기본훈련 1만원 → 1.5만원 (50%), 작계훈련 1만원 → 1.6만원 (60%)

* '30년 유형별 예비군 훈련비 인상안

- 동원훈련 I 형·II 형 33만원, 기본훈련 8.3만원, 작계훈련 12.4만원

※ '26년 최저시급(10,320원)에서 물가상승률과 훈련시간을 고려하여 적용

□ 기대 효과

- 청년시절 국가에 대한 헌신(예비군훈련)에 대한 합당한 보상 가능
- 적정한 훈련비 지급으로 예비군훈련의 내실화(강도 증가) 가능
- 예비전력 중요성을 인식토록하여 예비전력 정예화 여건을 조성하는 기반 마련

17. 민간 응급의료팀을 활용하여 예비군훈련 병력이 있는 곳에 의료 인력을 밀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김후길 과장, 02-748-5240)

동시통합훈련을 실시하는 사단에 민간 응급의료팀 지원

* 12개 사단별 10개팀을 3일간 지원 (7.2억원)

□ 주요 내용

- (필요성) 동원훈련간 대규모 예비군이 입소시 부대가 확장되지만, 기존 의무자산으로 확장된 부대의 의무지원소요에 대응하는 것이 제한되어 응급상황 발생시 취약성 내재
 - * 기존 평시 동원사단 1,000명에 구급차 2~3대 보유, 기존 의무자산으로는 대규모 동원훈련시 참가하는 예비군 4~5천여명의 의료 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 발생
- (민간의료인력팀 배치) '27년부터 대규모 동원훈련시 응급구조사가 포함된 민간응급의료팀을 활용하여, 예비군에 대해서 근접 의무지원 실시
 - * 민간 의료인력을 단기 계약하여 운용(1개팀 : 응급구조사+운전기사+구급차), 4~5천여명 대규모 동원훈련시 적어도 10개 민간의료인력팀 배치하여 밀착 운용

□ 기대 효과

- 대규모 동원훈련간 기존 의무 자산의 부족 현상 보완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시에 응급조치 후 최기병원으로 후송이 가능하여 예비군의 인명사고 예방 가능

18. 병사 상해보험을 통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국방부 보건정책과, 김해인 과장, 02-748-6640)

병사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27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병사 상해보험 도입)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병사 단체 상해보험 도입
 - 병사가 입은 상해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액 지급
 -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 방지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마련

< 군 복무 병사 상해보험 구성(안) >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백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4만원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	1천만원
수술비	2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	1백만원
골절진단	3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백만원
화상진단	25만원	영외 교통상해사망	최대 2억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사망/후유장애	최대 2천만원

- 사업자 선정 및 보험설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7년 하반기부터 보험 제공
- * '27년 정부 예산안 : 현역·상근예비역 약 29만명 대상, 총 69억원 ('27. 7월 이후 운영)

□ 기대 효과

-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 분야까지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다층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19.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을 통해 병영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박신영 과장, 02-748-5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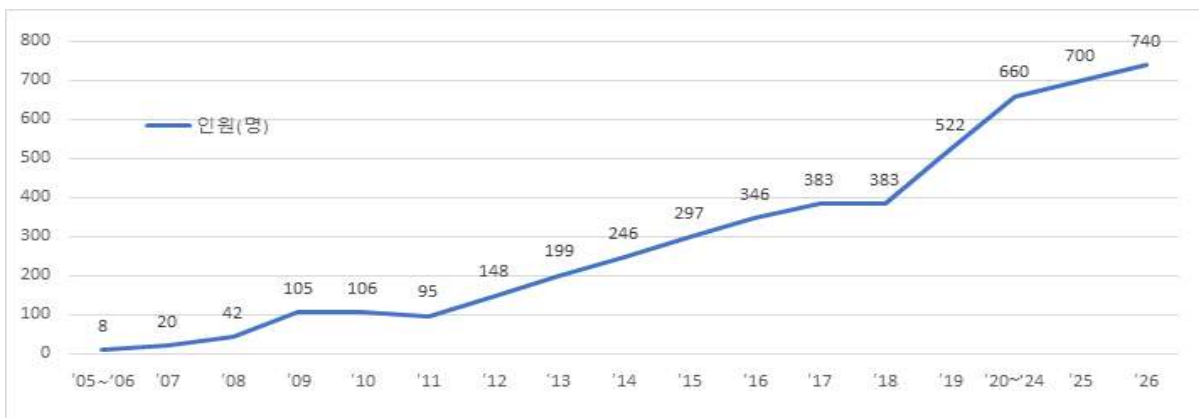
병영생활전문상담관 30명 증원(740명 → 770명)

□ 주요 내용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군 전투력 유지 및 나아가 장병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 하는데 기여
- ‘심리검사·분석→상담→지휘 조언→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증원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집중관리 수행

참고 자료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원 추이



20. ‘한 총, 한 책’ 프로젝트를 통해 책 읽는 병영문화를 조성합니다.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변수진 과장, 02-748-6260)

연간 입대 장병 20.5만여 명이 신병교육대 입소 시부터 군 복무기간을 국방의 의무뿐 아니라 독서를 통해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독서코칭) 전문가 독서 코칭이나 저자 초청 강연 등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동기 부여 마련
 - 독서코칭 관련 강연 실시 및 저자 초청 등(7억)
 - 독후감 작성·제출 시 포상 (외출 1일)
- (독후감 대회) 독후감 대회를 실시하여 장병 간 독서 경험 공유 및 확산 체계 마련하고 부대 단위 독서 붐 조성
 - 글, 쇼츠 독후감 공모전 (1.5억)

□ 기대효과

- 기존 진중문고 보급, 병영도서관 운영 및 환경개선 등에 포함하여 병영독서 여건 개선하여, 복무간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장병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역 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됨.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 **한 총, 한 책**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을 줄임)
 - 총 (강한 군인) : 나라를 지키는 군인 본연의 임무를 상징
 - 책 (독서하는 군인) : 지식·교양·인성·미래준비를 상징
 - ⇒ 훈련·독서에 매진하는 장병이 ‘지혜로운 첨단장군’을 만든다.
- **[한] 권부터 시작하자!** (신교대에서 1권 독서)
- **[총] 과 책으로 문무(文武)를 겸비하자!** (대대급 병영도서관 활성화)
- **[한] 마음으로 다독[多讀] 하자!** (사·여단 단위 독서 ‘붐’ 조성)
- **[책] 속에 재물이 있다.** (우수사례 홍보·벤치마킹)

21.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방위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이경훈 과장, 02-2079-6440)

방산분야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별 패키지 지원 확대
 ('26년 54억원 → '27년 124억원, 전년대비 70억원 증액(+129.6%))

□ 주요 내용

- (지원체계) 스타트업의 방산분야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주기 체계적 지원

육성 1단계 (6개월, 최대 1억원)		육성 2단계 (1년, 최대 5억원)		육성 3단계 (2년, 최대 21억원)
진입('26년 신규)		성장(국방전환)		자립·확장 지원
• 방산 교육 • 업체 심층 검토 (경영·기술·軍 전문가 등 지원) • 선행 연구(방산 진입을 위한 R&D 기획 등) • 성장로드맵 수립 (R&D, 국방 사업화 등)	⇒ 기업 선별 (15개)	• 스타트업 보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R&D 지원 • 기술·인프라 지원 • 개발 성과물의 군 적용 가능성 확인·검증 • 투자유치를 위한 IR-day 개최	⇒ 기업 선별 (5개)	• 국방전환 R&D 결과에 대한 보완·추가 개발 • 보안시설·장비 구축 비용 지원 • 기술지원 사업화 연계 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IR-day 개최

- (기업지원 확대) '26년 육성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26-1기)* 중 우수 기업을 육성 2단계 진입** 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

* '26년부터 매년 육성 1단계 지원기업 선정, 기업 보유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로드맵 수립

** '27년 기존 1단계 육성사업을 완료한 '26-1기 기업 중 선정(45개 중 15개 기업)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신산업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육성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 * 육성 1단계(성장 로드맵 수립) 1억 이내, 육성 2단계(국방전환 기술개발) 5억 이내 등
- (신청방법) 방사청, 국기연 공고에 따라 인터넷 접수

22. 방산혁신기업 선정 확대로 중소기업 방산 진입 및 성장의 문을 넓힙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이경훈 과장, 02-2079-6440)

■ 방산혁신기업 지원 예산 확대

('26년 659억원 → '27년 758억원, 전년대비 99억원 증액(+15.0%))

■ 방산혁신기업 첨단전략산업분야 개편 및 신규 선정 규모 확대

(방산혁신기업100 → 200, 신규 +30개 내외 선정)

□ 주요 내용

- (지원예산 확대) 방산혁신기업 지원 확대 및 집중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99억원 증액(+15.0%)
 - * ('26) 659억원, 신규과제 22건 → ('27) 758억원, 신규과제 35건
- (선정분야 개편) 기존 지원 첨단전략산업분야 외 미래 유망분야 추가 발굴 및 개편으로 관련기업 지원 기회 확대
 - * 우주·반도체·AI·드론·로봇·첨단센서 및 소재 → 예)양자·에너지·추진체 등 신규 유망분야 추가 발굴
- (선정규모 확대) 방산혁신기업100 → 방산혁신기업200 확대 추진, 신규 선정 기업 1.5배 확대(20개 내외 → 30개 내외 기업)
 - * ('22~'26) 방산혁신기업100 → ('27~'31) 방산혁신기업200 확대 추진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우주, 반도체, AI, 드론, 로봇, 첨단센서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하여 선정기간(5년) 간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첨단전략산업분야 혁신기술 보유 기업 * 선정공고 내 신청 자격요건 확인 필요
- (지원내용) 기술개발 지원, 수출지원, 방사청 지원사업 연계 우대 등 전 사업 주기 Full-Package 지원
- (신청방법) 방사청, 국기연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전자우편 접수

23. 중소기업 제품을 군 환경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이경훈 과장, 02-2079-6440)

실증시험 지원사업 예산 확대

('26년 78억원 → '27년 174억원, 전년대비 96억원 증액(+123.1%))

□ 주요 내용

- (예산 대폭 증액) 중소기업 개발품의 성능 확인 및 군 활용성 검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이 전년대비 96억원 증액(+231%)
* ('26) 78억원, 과제수 47개 → ('27) 174억원, 과제수 약 70개 예정
- (트랙 다변화 추진) 기존 업체가 제안한 과제에 대한 실증뿐 아니라 군에서 필요한 실증 주제를 종합하여 공모하는 하향식 과제 신설('27) 추진

사업 개요

<실증시험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산·학·연 중심 우수기술의 신속한 소요 반영과 국내 중소기업 개발품의 성능 확인 및 군 활용성 향상 등을 위한 군 실증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3억 내
- (지원내용) 개발 성과물에 대한 전투실험과 체계적합성시험 지원

< 실증시험 지원사업 지원 유형 >

구 분	전투실험 지원	체계적합성 시험 지원
목 적	중소기업 개발품의 성능 확인 및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한 전투실험, 체계적합성 시험을 지원	
예 산	과제별 시제품 재료비, 실증 수행비, 보험료, 인건비 등 약 78억원	

24.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이경훈 과장, 02-2079-6440)

방산 중소기업 대상 수출패키지 지원 예산 확대

('26년 512억원 → '27년 627억원, 전년대비 115억원 증액(+22.5%))

□ 주요 내용

- (방산 중소 수출길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과제 증가 및 계속과제 지속 지원으로 전년대비 68억원 증액(+32.4%)
* ('26) 210억원, 과제수 40건 → ('27) 278억원, 과제수 55건(신규 25건, 계속 30건)
- (GVC30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속 지원으로 전년대비 47억원 증액(+15.5%)
* ('26) 301억원, 과제수 20건 → ('27) 348억원, 과제수 30건(신규 10건, 계속 20건)

사업 개요

<방산 중소 수출길 지원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MOU나 NDA 체결 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과제당 2년, 정부지원금 30억원 이내
- (지원내용) 글로벌 방산기업 수출용 제품개발, 시설·장비 도입, 마케팅,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실증시험 비용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GVC30 프로젝트>

- (사업개요) 글로벌 방산시장 진입 잠재력이 높은 국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사업
* 절충교역 가치 5배수 인정을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과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지원
- (지원규모) 과제당 2년, 정부지원금 50억원 이내
- (지원내용) 글로벌 방산기업 수출용 제품개발, 시설·장비 도입, 마케팅,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실증시험 비용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25.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체감형 병무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병무청 정보기획과, 백상현 과장, 042-481-2634)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과 민원처리 연계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처리결과 확인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지능형 상담) 병무행정 특화 학습체계(RAG)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는 맞춤형 상담 제공
 - * (학습자료) 챗봇 시나리오(약 2,500건) 및 병무행정 관련 법령·훈령 등
- (원스톱 민원처리) 관련 민원서비스를 안내·연계하여 상담부터 신청·처리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 * (서비스 분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현역병 입영신청 등
- (개인화 서비스) 학력·전공·자격 등 개인 특성을 분석하여 병역의무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

참고 자료

■ 에이전틱 AI기반 상담·민원신청시스템

사업내용 (19.32억)	1.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병역의무 이행 민원상담 체계 개편 가. (인프라구축) 자연어 처리·학습 가능한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 나. (민원상담·신청) 상담의도를 파악한 One-Stop 민원신청 처리체계 구축 다. (보안강화) 민감질문에 대한 프롬프트 필터링 도입으로 보안사고방지 2. 상담내용 기반 개인별 병역의무 이행 설계, 개인화 서비스 구축 가. (병역의무 이행 설계) 개인 상황에 맞는 병역의무 이행 설계 서비스 구축 나. (맞춤서비스) 상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우선순위 추천 및 관리
------------------	---

26. 국방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를 일원화합니다.

(병무청 동원관리과, 김삼학 과장, 042-481-2763)

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병무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 주요 내용

- (배경)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가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 동원훈련Ⅱ형은 국방부(軍)로 이원화되어 국민 불편 초래 및 행정비효율 발생
 - * 동원훈련Ⅰ·Ⅱ형 훈련은 국방부(軍) 실시
- (사업내용) 예비군 동원훈련Ⅰ·Ⅱ형의 행정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하기 위해 병무행정시스템 內 동원훈련Ⅱ형 시스템 구축
 - * 동원훈련Ⅱ형 시스템 구축 예산 약 1,350백만원 반영
- (추진현황) 훈련일자 본인선택 등 동원훈련Ⅱ형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구성도 작성
 - * 훈련일자 본인선택, 통지, 연기, 여비지급 등 단위업무별 화면 구축

참고 자료

■ 동원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 개요(로드맵)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법 제	제도 설계, 개정안 마련	병역법 개정(6월)	'29년 동원훈련계획 작성	'30년 동원훈련계획 작성	전면 시행 (14개청)
인 력	'28년 파견인력 협의(군무원)	'29년 직제요구 (본부 및 6개청)	'30년 직제요구 (8개청)	정시직제운영	
시스템	동원Ⅱ형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모의적용)	일부 운영 (1개청)	확대운영 (6개청)	

27.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입영(소집) 시 항공여비를 지급해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변인경 과장, 042-481-2912)

국외 병역의무자의 입영(소집) 항공여비 신규 지원(약 6억원, 400여명)

□ 주요 내용

- (지원 확대) ^{현행} 휴가 중 왕복, 전역 시 귀가 항공여비 지원
→ ^{개선} 입영(소집)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여비 지원 추가
*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
- (체계 구축) 영주권 입영희망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입영(소집) → 복무 → 전역(소집해제)'으로 이어지는 병역의무 이행 지원체계 구축 완료

□ 기대 효과

-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의 국가책임 강화,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 조성
* (27년 예산) 559백만원 / 438명(영주권 입영희망원 3년 평균) × 1,277천원

참고 자료

- (지원대상) 영주권 입영희망원 신청을 한 사람이 입영(소집)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입영(소집) 확인 시 항공여비 지원
* 현재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휴가 중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와 전역(소집해제)시 귀가 항공여비 지원

■ (영주권 입영희망원 입영현황)

(단위 : 명)

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이전
8,243	467	431	418	600	690	684	603	4,350